

<지난주 말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약, 마지막 약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마지막 약입니다. 이 약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약이 맞는지 체험되어지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참 수고했다.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의식을 얼마나 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안다면 제가 수고한다고 인사한 이유를 알겠지요.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게 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가능케 되어졌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익서이 내가 오늘 받은 응답이구나. 이 응답이 아니었으면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놓고 어떻게 의식 속에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간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는 일년의 십일조를 드려 봐야 되겠다. 또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여러가지 감사할 조건이 참 많더라구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병원에 안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전도운동하는 것 감사하고, 교회가 안 무너지고 지속되는 것이 감사하고, 보통 감사할 것이 아니더라구요. 정말 최고의 삶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살리는 기도의 의식,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의 의식, 내 삶을 살리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우리 종직자들은 내 인생을 놓고 어떤 후대를 준비하고 키울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대학생들에게 늘 이야 기합니다. 밥 먹고 살려고 대학 다닐거면 대학 다니지 마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어떤 인생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백년입니다. 그 백년이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남기고 갈 것인지, 최고의 삶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세 절기의 비밀입니다. 세 절기는 항상 누려야 할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유월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내가 어디서 출애굽했습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절대멸망에서

우리는 출애굽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배경이 바로 나의 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운명에서 빠져나온 유월절의 비밀을 우리는 늘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구원의 비밀을 가졌다면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한 오순절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유월절은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다면 오순절은 뭐냐? 내 인생 여정입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는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이정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수장절의 비밀, 그것은 곧 나의 배경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비밀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의 배경,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추수감사 예배 때 드리려고 과일 찾으러 다녔습니다. 가락시장 다니면서 최고 크고 좋은 과일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인줄 알았어요. 일년 곡식 찾아서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절기인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절기 속의 내용을 붙잡고 그 내용의 비밀을 항상 누리고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좌의 배경 속에 수장절의 비밀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라는 배경,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추수감사절의 비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비밀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번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은 안 좋은 상관하지 마시고 신분을 회복하세요. 신분을 회복하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권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만원짜리 현 돈이 있고 새 돈이 있습니다. 현 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줍습니까? 구겨진 현 돈과 새 돈의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지가 어렵습니까? 힘

든 상황이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상황이지, 내 신분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속습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속을 때가 많아요. 이정도 밖에 안되나? 그럴 때는 제 신분과 권세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습니다. 내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가 내 배경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는 인침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확정을 하라는 말은 확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이구나. 이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보증서에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만 찍히면 날짜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인침이 확정이 되면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보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해야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이 된다는 말은 진단을 했을 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단할 줄 알아야 하고 진단을 통한 답을 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나오는 답이 바로 오직입니다.

▶네번째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결과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땅에서 배경이 결정됩니다.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본론>

1.사도 요한이 본 것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집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비밀은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첫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힘이 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다른 천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

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계10:1-3)

이런 모습을 큰 힘 센 다른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천사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손에는 봉인이 해제된 작은 두루마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우주적 권위를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 센 다른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 같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레 같은 소리를 통해 들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간은 금이다, 할 때 이런 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계10:4)

사도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할 때 일곱 우레의 소리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표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봉하고 감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있는 현장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 나는 영적 의사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영적 의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냐. 나는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나는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의식을 통해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안합니까?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에 좋은지 알면 하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두번째로 본 것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10:5-6)

조금 전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감추는 것도 지체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비밀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열 처녀의 비유 속에 지혜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산이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오다 말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래가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여정을 가고 어떤 이정표를 남길 것인가, 인생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의미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가장 가치있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3.세번째로 본 것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계10:7)

언제입니까?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 날, 복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체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입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직자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후대가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후대가 걸려 있구나. 후대를 살리는 지도자, 후대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후대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있구나, 이걸 잊어서 안됩니다. 밥 먹고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계10:8-9)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지만, 주중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먹습니까? 꿀같이 단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0-11)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전하는 이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언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는 대언자로 서야 합니다.

〈결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곧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지체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구원의 날처럼 인봉된 그 말씀도 그 날에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에 쓰고 입에 단 이 말씀을 먹고 전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먹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축복이 또 이번 한주간 붙잡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